

# 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 1.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지 않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 ② 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③ 장래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④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 ⑤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한다.

## 2.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 ②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단한다.
- ③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을 보상금은 취득시점의 추정금액을 취득원가에 조정한다.
-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제거한다.
- ⑤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3.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②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③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 ④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이다.
- ⑤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 4.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될 수 있는 것은?

- ① 최초 인식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 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 ④ 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 ⑤ 관계기업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5. 20×1년 12월 31일 (주)세무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90%가 소실되었다. (주)세무의 이용가능한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의 추정 손실금액은? (단, (주)세무의 매출은 모두 신용거래이다.)

기초재고	₩150,000	당기매입액	₩12,000,000
매출채권(기초)	₩80,000	매출채권(기말)	₩120,000
손실충당금	(8,000) 72,000	손실충당금	(10,000) 110,000
○ 당기 매출채권 현금회수액: ₩11,500,000			
○ 당기 회수불능으로 인한 매출채권 제거 금액: ₩5,000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총이익률은 40%이며 큰 변동은 없었다.			

- ① ₩4,696,920    ② ₩4,700,700    ③ ₩4,704,480    ④ ₩5,223,000    ⑤ ₩5,268,000

6. (주)세무는 20×1년 초 가건물이 있던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기존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토지구입대금	₩200,000	토지소유권이전비	₩3,000
토지의 정지 및 측량비	50,000	진입로 공사비	30,000
건물신축 허가비	25,000	가건물 철거비	18,000
신축건물 공사원가	150,000	가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수입	5,000
건축설계비	15,000	토지분 재산세	4,000
건물등록비	20,000	울타리 설치공사	13,000

- ① ₩185,000    ② ₩210,000    ③ ₩223,000    ④ ₩228,000    ⑤ ₩241,000

7.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7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다음 자료에 근거할 때,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지배기업 소유주 당기순이익은?

○ 20×1년 1월 1일 연결분개			
(차) 자본금	200,000	(대) 투자주식	240,000
이익잉여금	30,000	비지배지분	90,000
재고자산	10,000		
유형자산	60,000		
영업권	30,000		
○ 위 분개에서 재고자산은 당기에 모두 처분되었으며, 유형자산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도 (주)세무와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30,000이다.			
○ 20×1년도 중 (주)세무와 (주)한국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 ① ₩49,000    ② ₩55,600    ③ ₩62,600    ④ ₩64,000    ⑤ ₩71,000

8.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
○ 세무조정사항:	
- 정기에금 미수이자	₩20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0
- 벌금과 과태료	70,000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50,000
○ 법인세율은 20%로 유지된다.	
○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 ① ₩214,000    ② ₩244,000    ③ ₩258,000    ④ ₩288,000    ⑤ ₩298,000

9.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복구조건이 있는 연구용 설비(취득원가 ₩440,000, 잔존가치 ₩5,130, 내용연수 3년, 복구비용 추정금액 ₩100,000)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실제 복구비용은 ₩120,000이 지출되었으며, 잔존 설비는 ₩3,830에 처분하였다. 20×3년도에 이 설비와 관련하여 인식할 총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10%이며, 기간 3년(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513으로 계산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180,391    ② ₩191,300    ③ ₩199,091    ④ ₩200,391    ⑤ ₩202,466

10.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1년 12월 20일 외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이 선적지인도조건으로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고, 동 재고자산은 기말 재고 실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오류 수정 전 재무비율 산정 시 분모·분자 값은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

- ① 20×1년도 매출원가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높다.  
 ② 20×1년도 총자산회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③ 20×1년도 말 현재 당좌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④ 20×1년도 말 현재 부채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⑤ 20×1년도 총자산이익률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11. (주)세무의 20×1년 말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당좌개설보증금	₩10,000	당좌차월	₩1,200
당좌예금	(     )	우편환증서	4,000
차용증서	1,000	수입인지	500
소액현금	300	배당금지급통지서	1,500
종업원 가불증서	2,500	환매채	1,500
타인발행약속어음	10,000	정기예금	2,000

<추가자료>

○ 아래 사항을 조정하기 이전 은행측 당좌예금 잔액은 ₩12,800이다.

- 거래처에 상품 매입 대금 결제로 발행한 수표 ₩7,500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에서 판매 대금으로 입금 통보한 ₩2,800을 (주)세무는 회계처리하였으나, 은행은 전산장애로 인해 입금처리하지 못했다.

○ 환매채의 취득일은 20×1년 12월 1일이며, 4개월 후 환매조건이다.

○ 정기예금은 1년 만기이며, 만기일은 20×2년 1월 31일이다.

- ① ₩12,100      ② ₩13,900      ③ ₩15,400      ④ ₩15,900      ⑤ ₩25,100

12. (주)세무의 20×2년도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 표시된 항목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당기순이익	₩200,000	매출채권 감소	₩15,000
이자수익	20,000	매입채무 감소	12,000
이자비용	35,000	미지급급여 증가	6,000
법인세비용	40,000	이자지급	26,000
감가상각비	50,000	이자수취	18,000
기계장치처분이익	8,000	법인세납부	42,000
재고자산 증가	25,000		

- ① ₩223,000      ② ₩231,000      ③ ₩239,000      ④ ₩281,000      ⑤ ₩311,000

13. 금융자산의 재분류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 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14.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처음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 전환가격 ₩100)를 발행하였고, 동 전환사채는 당기 중 전환되지 않았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1,500,000,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120,000, 법인세율이 20%일 때, 희석주당이익은? (단, 계산에 필요한 기간은 월 단위로 한다.)

- ① ₩632      ② ₩638      ③ ₩672      ④ ₩750      ⑤ ₩798

15.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6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6년,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는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조정하고 있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해야 할 당기비용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년 말	20×2년 말
₩550,000	₩374,000

- ① ₩16,000      ② ₩66,000      ③ ₩110,000      ④ ₩126,000      ⑤ ₩176,000

16. (주)세무는 (주)한국에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이자부약속어음(액면가액 ₩160,000, 5개월 만기, 표시이자 연 9%)을 받고, 이 어음을 2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서 할인하여 ₩161,518을 수령하였다. 동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이 어음 거래에 적용된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 ① 10.2%      ② 10.4%      ③ 10.5%      ④ 10.6%      ⑤ 10.8%

17. (주)세무는 재고자산을 소매재고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하며 원가율은 저가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매출원가는?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9,000	₩8,950
당기매입	64,410	94,100
매입운임	420	—
매입환출	230	—
매출액	—	98,000
종업원할인	—	2,000
순인상액	—	900
순인하액	—	700

- ① ₩61,200      ② ₩66,640      ③ ₩71,300      ④ ₩71,374      ⑤ ₩71,390

18.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취득원가 ₩550,000, 잔존가치 ₩10,000, 내용연수 10년)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00,000으로 추정되어 손상을 인식하였다. 20×4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40,000으로 회복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20×2년 말 장부금액은 ₩300,000이다.  
 ② 20×2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42,000이다.  
 ③ 20×3년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36,250이다.  
 ④ 20×4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180,500이다.  
 ⑤ 20×4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환입액은 ₩112,500이다.

19. (주)세무는 20×1년 초 5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다. 20×2년 말 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후 사채의 장부금액이 ₩84,000이 되었다면, 20×3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차)	이자비용	8,200	대)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
			현	금	6,200

- ① ₩86,200      ② ₩86,600      ③ ₩87,000      ④ ₩87,200      ⑤ ₩87,600

20.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3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 동 기계장치의 부품 교체에 ₩10,000을 지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부품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식한다.
- 부품 교체시점에서의 회계추정 변경사항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잔존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500

동 기계장치의 20×2년 감가상각비와 20×3년 말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20×2년 감가상각비      20×3년 말 장부금액

- |   |         |         |
|---|---------|---------|
| ① | ₩9,000  | ₩15,500 |
| ② | ₩9,000  | ₩17,100 |
| ③ | ₩9,750  | ₩15,500 |
| ④ | ₩9,750  | ₩17,100 |
| ⑤ | ₩12,000 | ₩17,100 |



21. (주)세무는 공장건물을 20×1년 1월 1일 착공, 20×2년 10월 말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1년 후급조건이며 월할계산한다.)

○ 공사비 지출

일자	금액
20×1년 1월 1일	₩10,000
20×1년 7월 1일	7,000

○ 차입금 현황

종류	금액	이자율	차입기간
특정차입금	₩10,000	5%	20×1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일반차입금A	1,000	8%	20×0년 8월 1일 ~ 20×2년 7월 31일
일반차입금B	3,000	6%	20×1년 9월 1일 ~ 20×3년 10월 31일

- ① ₩640      ② ₩728      ③ ₩745      ④ ₩760      ⑤ ₩990

22. (주)세무의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발행가 ₩6,500)와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이 발생했을 때, 20×1년 4월 30일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회계처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거래일자	주식수	주당 채취득금액	주당 재발행금액
20×1년 3월 1일	50	₩6,800	-
20×1년 4월 1일	20	5,600	-
20×1년 4월 21일	30	-	₩6,900
20×1년 4월 30일	10	-	4,800

(차변)

(대변)

- |          |        |      |        |
|----------|--------|------|--------|
| ① 현금     | 48,000 | 자기주식 | 68,000 |
| 자기주식처분이익 | 3,000  |      |        |
| 자기주식처분손실 | 17,000 |      |        |
| ② 현금     | 48,000 | 자기주식 | 68,000 |
| 자기주식처분손실 | 20,000 |      |        |
| ③ 현금     | 48,000 | 자기주식 | 56,000 |
| 자기주식처분손실 | 8,000  |      |        |
| ④ 현금     | 48,000 | 자기주식 | 50,000 |
| 감자차익     | 2,000  |      |        |
| ⑤ 현금     | 48,000 | 자기주식 | 50,000 |
| 감자차손     | 2,000  |      |        |

23. 자본 및 자본유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 ②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 ③ 자본을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는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된다.
- ④ 재무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며, 실물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⑤ 자본을 실물생산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로 처리된다.

24. (주)세무는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으며, 20×2년 초 전환사채 전부를 ₩1,070,000(상환시점의 공정가치)에 조기상환하였다. 이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현재가치표를 이용하며, 현재가산 시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4%
-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8%
-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조기상환일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15%
- 상환할증금: 없음
- 발행 시 주식전환 옵션은 전환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
- 현재가치

기간 \ 할인율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5%	8%	15%
2	0.85733	0.75614	1.78326	1.62571
3	0.79383	0.65752	2.57710	2.28323

- ① 발행 당시 전환권대가는 ₩103,086이다.
- ② 20×1년도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31,753이다.
- ③ 20×2년 초 장부금액은 ₩928,667이다.
- ④ 20×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일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821,168이다.
- ⑤ 20×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사채상환손실은 ₩38,247이다.

25. 농림어업 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초의 인식시점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② 생물자산을 이전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③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④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 ⑤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생산용식물이다.

26.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년에는 4,000단위를 생산하였고, 20×2년에는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5,000 많았다. 20×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수량/금액
기초제품 수량		(     )단위
생산량		4,000단위
기말제품 수량		1,200단위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250
	직접재료원가	80
	직접노무원가	40
	변동제조간접원가	30
	변동판매관리비	1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200,0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		100,000

(주)세무의 20×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단, 20×1년과 20×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① 500단위      ② 650단위      ③ 700단위      ④ 950단위      ⑤ 1,700단위

27.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의 50%를 예정 배부한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한다. 9월의 기본원가, 매출액과 배부차이 조정 후 기말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가	₩750,000	매출액	₩1,000,000
기말재공품	120,000	기말제품	180,000

9월의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율이 80%일 때, 배부차이는? (단, 기초재고 자산은 없다.)

- ① ₩10,000 과대배부      ② ₩15,000 과소배부      ③ ₩15,000 과대배부  
④ ₩25,000 과소배부      ⑤ ₩25,000 과대배부

28. (주)세무는 원가행태를 추정하기 위해 고저점법을 적용한다. (주)세무의 경영자는 추정된 원가함수를 토대로 7월의 목표이익을 ₩167,500으로 설정하였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추정 목표매출액은? (단, 당월 생산된 제품은 당월에 전량 판매되고, 추정 목표매출액은 관련범위 내에 있다.)

월	총원가	총매출액
3월	₩887,000	₩980,000
4월	791,000	855,000
5월	985,500	1,100,000
6월	980,000	1,125,000

- ① ₩1,160,000    ② ₩1,165,000    ③ ₩1,170,000    ④ ₩1,180,000    ⑤ ₩1,200,000

29.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20,000단위, 전환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18,000단위, 완성품 수량은 15,000단위이다. 20×1년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 ① 50%      ② 60%      ③ 75%      ④ 80%      ⑤ 90%

30.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전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1년과 20×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20×1년	20×2년
제품 생산량	1,500단위	1,750단위
제품 판매량	1,200단위	( )단위
기말제품 수량	( )단위	150단위
제품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8	₩40
고정제조간접원가	₩48,000	₩70,000

(주)세무의 20×2년도 매출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① ₩147,000    ② ₩148,000    ③ ₩148,600    ④ ₩149,000    ⑤ ₩149,400

31. (주)세무는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P, Q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사용부문 제공부문	보조부문		제조부문		용역생산량
	A	B	P	Q	
A	10%	40%	20%	30%	1,000단위
B	20%	10%	40%	30%	2,000단위
○ 보조부문 A의 원가: ₩50,000 + ₩70 × 1,000단위					
○ 보조부문 B의 원가: ₩30,000 + ₩150 × 2,000단위					

(주)세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부문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주)한국으로부터 보조부문 A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150에, (주)대한으로부터는 보조부문 B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200에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주)세무가 보조부문의 용역을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정원가를 회피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주)세무는 보조부문 A와 B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주)세무가 보조부문 A를 폐쇄하고 (주)한국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7,000 증가한다.  
 ③ (주)세무가 보조부문 B를 폐쇄하고 (주)대한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20,000 감소한다.  
 ④ (주)세무가 보조부문 A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단위당 ₩120이다.  
 ⑤ (주)세무가 보조부문 B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단위당 ₩170이다.

32. (주)세무는 주산품 A, B와 부산품S를 생산한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9,500이다.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며, 당기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	판매량
A	₩2,000	₩40	200단위	180단위
B	1,000	20	250	200
S	500	15	100	90

주산품B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으며, 부산품S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 ① ₩480      ② ₩560      ③ ₩580      ④ ₩750      ⑤ ₩810

33.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100단위, 생산량은 2,000단위, 판매량은 1,800단위이다. 20×2년의 제품 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250
	직접재료원가	30
	직접노무원가	50
	변동제조간접원가	60
	변동판매관리비	15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50,0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		10,000

20×2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초변동원가계산(throughput costing)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금액은? (단, 20×1년과 20×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① ₩10,000      ② ₩11,000      ③ ₩20,000      ④ ₩22,000      ⑤ ₩33,000

34.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투입하여 두 개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1공정에서는 직접재료 1톤을 투입하여 제품A 400kg과 중간제품M 600kg을 생산하며, 제2공정에서는 중간제품M을 가공하여 제품B 600kg을 생산한다. 직접재료는 제1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모든 공정에서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200/톤, 고정원가는 ₩70,000이 발생하였으며, 제2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1,200/톤, 고정원가는 ₩58,000이 발생하였다. 직접재료 구입원가는 ₩2,000/톤이며, 제품 A와 B의 판매가격은 각각 ₩3,000/톤, ₩5,000/톤이다. 생산된 모든 제품이 전량 판매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 |   | <u>제품A</u> | <u>제품B</u> |   | <u>제품A</u> | <u>제품B</u> |   | <u>제품A</u> | <u>제품B</u> |
|---|------------|------------|---|------------|------------|---|------------|------------|
| ① | 40톤        | 60톤        | ② | 48톤        | 72톤        | ③ | 50톤        | 75톤        |
| ④ | 60톤        | 90톤        | ⑤ | 80톤        | 120톤       |   |            |            |

35. (주)세무는 두 종류의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한다. 두 제품의 월간 예상 판매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제품A	제품B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50	₩45
	변동제조원가	32	25
	고정제조간접원가	5	7
	변동판매관리비	8	5
	고정판매관리비	2	2
기계시간당 생산량		4단위	2단위
월간 예상수요량		120단위	80단위

(주)세무의 월간 최대 사용가능한 기계시간은 50시간이다. (주)세무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월 최적 제품배합은? (단, 월간 고정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 |   | <u>제품A</u> | <u>제품B</u> |   | <u>제품A</u> | <u>제품B</u> |   | <u>제품A</u> | <u>제품B</u> |
|---|------------|------------|---|------------|------------|---|------------|------------|
| ① | 40단위       | 80단위       | ② | 60단위       | 70단위       | ③ | 80단위       | 60단위       |
| ④ | 100단위      | 50단위       | ⑤ | 120단위      | 40단위       |   |            |            |

36. (주)세무는 20×1년에 제품A를 5,000단위 생산하여 전량 국내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제품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7,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1,000이다. (주)세무는 20×1년 초에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A 3,000단위를 단위당 ₩8,0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해외 거래처의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제품A 1단위당 부품B(단위당 외부구입가격: ₩500) 1단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20×1년도 국내시장 판매량을 350단위 감소시켜야 한다. 특별주문과 관련된 판매관리비는 주문수량에 관계없이 ₩300,000 발생한다. (주)세무가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20×1년도 예산이익의 증가(또는 감소) 금액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 ① ₩300,000 증가                      ② ₩420,000 증가                      ③ ₩500,000 증가  
④ ₩550,000 감소                      ⑤ ₩800,000 감소

37. (주)세무는 20×1년 초에 설립되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피커를 생산하고 있다. 스피커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0이며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00,000이다. (주)세무는 당기에 국내시장에서 스피커 300단위를 판매하고,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스피커는 해외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스피커의 국내 판매가격은 단위당 ₩10,000이며, 해외 판매가격은 단위당 ₩9,000이다. 해외시장에 판매하더라도 원가구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 ① 350단위                      ② 375단위                      ③ 400단위                      ④ 450단위                      ⑤ 500단위

38. (주)세무는 세 개의 제조부문(P1, P2, P3)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용부문 제공부문	제조부문			보조부문	
	P1	P2	P3	S1	S2
S1	40%	20%	20%	-	20%
S2	30%	30%	30%	10%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 P3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0,000, ₩120,000, ₩12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각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 |            |           |            |           |
|------------|-----------|------------|-----------|
| <u>S1</u>  | <u>S2</u> | <u>S1</u>  | <u>S2</u> |
| ① ₩100,000 | ₩290,000  | ② ₩120,000 | ₩270,000  |
| ③ ₩150,000 | ₩300,000  | ④ ₩270,000 | ₩120,000  |
| ⑤ ₩300,000 | ₩150,000  |            |           |



39.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년의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00,000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800,000이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으로 직접노무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조업도는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이고, 20×1년에 실제로 투입된 직접노무시간은 850시간이다. 20×1년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가 ₩80,000(불리)할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 ① ₩15,000 유리                      ② ₩45,000 유리                      ③ ₩10,000 불리  
 ④ ₩15,000 불리                      ⑤ ₩45,000 불리

40.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직접재료의 20%가 제조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며 제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완성품 1단위에는 직접재료 0.1kg이 포함되어 있고, 당기에 2,000단위가 완성되었다. 당기에 투입된 직접재료는 190kg,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25%)은 38kg, 기초재공품은 90kg이었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단, 공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① 25%                      ② 30%                      ③ 40%                      ④ 50%                      ⑤ 60%

## 상 법

### 41.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목적
- ② 상호
- ③ 본점의 소재지
- ④ 자본금의 액
- 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42.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다.)

- ①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설립등기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의 성명은 등기해야 하지만 그 외의 사원의 성명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 ④ 노무를 출자한 사원이 퇴사한 경우 정관에 지분의 환급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퇴사한 노무출자사원은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⑤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3. 상법상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 회사의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주식회사가 정한 해산사유는 설립등기 사항이 아니다.
- ④ 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의 해산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4. 상법상 甲(무한책임사원)과 乙(유한책임사원)이 A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甲, 乙만이 사원으로 있는 A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 이 무한책임사원, 乙 이 유한책임사원이라는 것은 설립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다.
- ② 乙 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乙 은 甲 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A 합자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 ④ 乙 이 퇴사한 때에는 A 합자회사는 해산된다.
- ⑤ 무한책임사원 甲과 유한책임사원 乙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

45.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법은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 ⑤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46.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다.)

-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 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 ④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으며,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4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과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주권의 기재사항이다.
- ③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 ④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 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48.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모두를 동시에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분할을 할 수 없다.
- ③ 주주가 수인인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④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49.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도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만 비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
- ⑤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주주명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부담한다.

**50. 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목적 및 가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사원은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그 출자의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사의 정관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원 또는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인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5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 ③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개요와 청약의 조건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청약을 받거나 구두로 청약을 받을 수 있다.
- ⑤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한다.

**52.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의 소유비율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 ① 주주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④ 주주가 법령 위반행위를 행한 이사에게 위법행위유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⑤ 위법행위를 행한 이사에 대한 주주총회 해임결의가 부결된 때에 주주가 법원에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53.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 ㄴ.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ㄷ. 회사가 액면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ㄹ. 회사는 보통주식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액면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54. 상법상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주식의 소각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이상 질권자가 주권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주식의 등록질의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5.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주권이 상장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이 인정되고 있다.
- 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그 종류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나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56.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甲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집행임원이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직 중인 주식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였고, 乙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다면 甲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甲이 그 후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발행주식을 하나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④ 甲의 대표소송 제소청구에 응하여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甲이 승소한 때에는 甲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7. 상법상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 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②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
-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5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주주제안의 내용이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는 그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회사는 적법한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59.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 ② 회사가 주주의 일부인 회사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③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 이외에도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된다.
- ④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무효이다.

**60.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호주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②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③ A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A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아니라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면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1. 상법상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② 주식회사의 설립무효판결
- ③ 합병회사의 설립무효판결                                ④ 주식회사의 합병무효판결
- 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판결



62.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③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 소에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소한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⑤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 소의 원인이 된다.

63.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정관의 변경                      ② 지배인의 선임                      ③ 주식배당
- ④ 감사의 선임                      ⑤ 이사의 해임

6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대표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선의인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회사는 소송고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65.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다.)

-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④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 경우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66.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사는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 ③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이사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아니므로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7.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 ① 회사 계속의 결의                      ② 간이영업양도 결의                      ③ 자본금 감소의 결의
- ④ 정관변경 결의                      ⑤ 이사해임 결의

68.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④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69.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없다.
- ②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2년 이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④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전원에게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⑤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는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한 사채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만 하여야 한다.

70.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사후설립
- ②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③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⑤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71. A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8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이사가 1인이다. 상법상 이사회 결의 사항 중 A 주식회사의 이사가 담당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 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
- ②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의 주주총회의 소집
- ③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것
- ④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⑤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그 양도에 관한 승인

72.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 ② 집행임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소정 기간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집행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집행임원은 이사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집행임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⑤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73. 상법상 (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 ) 내이다.

-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5년

74. 상법상 A 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변경을 위한 A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이어야 한다.
- ② A 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A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B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 ③ A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 ④ A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A 주식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A 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5. A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B 주식회사를 A 주식회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기 위하여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와 개별적으로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②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A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다른 정함이 없다면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 ③ A 주식회사가 신주발행 없이 자기주식만을 B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전해 주고 B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면 주식교환의 날에 A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한다.
- ④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A 주식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주식교환 후에도 남은 경우 A 주식회사는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 ⑤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교환을 마친 경우 A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76.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가 적법하게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가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주주들은 그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④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으로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현물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정관에 현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 ⑤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가 금전으로 배당받은 경우 회사의 채권자는 주주를 상대로 회사에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7. 상법상 심리 중에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                      ② 주식회사의 주식교환무효의 소  
③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④ 주식회사의 이사해임의 소  
⑤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

**78.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 ②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사의 지위는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
- ③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④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집중투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79.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신설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 ② 상법상 모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와 합병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에 합병회사를 존속회사로 할 수 있다.
- ③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합병계약서에 규정할 수 없다.
-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멸한다.
- ⑤ 합병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일 경우에 합병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0.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청약서에는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⑤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